

# 정원 가꾸기와 글쓰기 : 마사 발라드와 가브리엘 루아\*

진 명 희

## 차 례

- I. 들어가는 글
- II. 마사 발라드의 정체성 구현의 공간
- III. 마르타 아람코의 치유와 창조와 소통의 공간
- IV. 나가는 글

## I. 들어가는 글

선구적 페미니스트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에서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약간의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창작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은 ‘집안의 천사’로서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가족들과의 일상적인 삶이나 고단함과 권태에서 벗어난 각자만의 독자적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혼자만의 세계에서 인간은 무한한 자유와 휴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진정한 자신이 되는, 썩기 모양의 어둠의 핵심”(Lighthouse 99), 즉 해방된 자아를 만나게 된다. 해방된 자아에 의해 인식되는 ‘존재의 순간들’은 삶의 근원이 되며, 이와 함께 인간은 타인과 교섭하는 공적인 경험의 조화로운 합일의 총체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인간의 회원과 관련하여 자기만의 방을 가질 수 없는 여성들에게 정원은 그들의 지친 삶을 위한 피난처이자 안식처이며 그들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기능을 발휘했다.

정원을 창조하고 가꾸어나간다는 것은 낙원과 실낙원의 본래적 상징인 ‘에

---

\* 2015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덴동산'에서 유래한 인간사회의 특성 중 하나이다. 영어에서 “경작하다”(cultivate)와 “문화”(culture)는 같은 어원을 갖는 단어로 라틴어 “culturare”의 파생어이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의하면 “컬처”(culture)라는 단어는 “토양과 식물을 가꾸고, 인위적 조건 하에서 번식시키고, 돌보고, 혹은 개발하는 것”<sup>1)</sup>으로, ‘정원’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자연에 가해진 ‘인공’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정원 가꾸기(gardening)는 문화를 재현하는 행위로 캐롤린 머천트(Carolyn Merchant)가 주장하듯이 “인간 행위를 위한 정당화이며 이데올로기가 되는 하나의 사회구조로 보여 질 수 있다”(Merchant 36). 로버트 해리슨(Robert Harrison)이 쓴 『정원: 인간 조건에 관한 에세이』(*Gardens: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라는 저서는 에덴동산으로부터 정원이 어떻게 인간 삶의 조건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주는데, “정원이 없는 인간의 역사는 황무지가 될”(Harrison x) 것이며 “정원 가꾸기는 세계를 여는 일—세계 내의 세계를 여는 일”(Harrison 30)이다. 자기만의 정원을 창조하는 일은 일면 인간의 문화와 사회를 확장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신에 의해 창조되고 통제된 이래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어느 의미에서는 세상을 모르는 채로”(Harrison 17) 권태의 정원에서 살아왔다. 그들은 “불복종의 의지를 가지기 보다는,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며, 어린애 같은”(Harrison 8) 주민이었다.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에덴동산에서 내쫓긴 후이며, 그 후로 아담과 이브는 지상의 토양과 인류의 영혼과 육체를 경작하기 위한 사랑의 “노동과 작업과 행동”(Harrison 9)<sup>2)</sup>을 끊임없이 행함으로써 마침내 문화적 인간이 되었다.

인간의 문화 영역에 맞춰 자연을 경작하며 정원을 가꾸는 일은 인류문화와 문명의 발달과 병행되어 왔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문화를 발달시키는 행위인 글쓰기는 정원 가꾸기 행위와 유사하다. 로버트 해리슨이 말하듯이 “인간 문화는 스토리들에 그 기원을 갖고 있고, 진행 중인 역사는 끝없는 스토리텔링의 하나이며”(Harrison 83), 스토리처럼 정원은 “그 자신의 개발 플롯/작은 구획의 땅(its own developing plot)”(Harrison 7)을 갖는다. 정원은 “역사의 광란

1) “옥스퍼드 영어사전”, Culture, v.1.a.b.

2)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1958)에서 주장한 “인간의 활동적 삶은 ... 노동, 작업, 행위로 구성된다”(“The vita activa, ... consists of labor, work, and action.”)에서 차용한 단어임.

과 소동으로부터 성역”(Harrison ix)을 제공하며 “일종의 안식처”(Harrison x)로 나서기 때문에<sup>3)</sup> 인간은 글쓰기 준비를 위해 자신의 정체성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원을 활용한다. 작가들이 플롯을 계획하고 조심스럽게 초안을 작성하듯이, 정원사들 또한 에덴동산과 같은 정원을 창조하려는 욕망을 갖고서 마음속에 그들의 정원을 상상한다. 18세기 영국 작가이며 비평가인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은 “셰익스피어 서문”(Preface to Shakespeare)에서 “기준에 맞게 정확하고 완전한 작가의 작품은, 신중하게 구성되고, 부지런히 심고 가꾸어지며, 다양한 색조를 띄며, 꽃들의 향기를 품고 있는 정원이다”(Wimsatt 45)라고 말한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정확하게 구성된 단어와 문장 같은 훌륭한 글쓰기는 잘 만들어진 자연의 정원이 보여주는 것처럼 독자들에게 무한한 즐거움과 황홀경을 가져온다. 경작되거나, 경작되어야만 하는 울타리 두른 땅<sup>4)</sup>이 정원이라면 글쓰기 역시 특정한 공간을 가꾸는 행동에서 유사성을 지니며, ‘플롯’이란 단어의 이중의미에서도 글쓰기와 정원 가꾸기는 처음부터 유비관계를 형성한다.

셸리 보이드(Shelley Boyd)가 주장하듯이 정원은 페미니스트 담론에서 공간적 메타포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며, “복종적인 여성 주체들에게 악명 높은 울로 둘러막은 땅”(Boyd 194)으로 중세 정원의 굳건한 담은 집안 여성들의 처녀성 보호라는 의미에서 여성의 자유와 신체를 억압/봉쇄하였다. 엘리너 페레니(Eleanor Perenyi)가 추측하듯이 정원의 울타리는 굳건한 정원 담 안쪽에 사는 여성들을 그녀의 주인(lord and master)이 돌아올 때 까지 가두어두는 정조대와 같았다(Perenyi 263). 여성들은 그들의 정원에서 자기들이 돌보는 섬세한 꽃들처럼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가꾼 “꽃들은 식물들 중에서 가장 위협적이지 않고 가장 쓸모없다”(Perenyi 261). 보이드가

3) 17세기 시인 앤드루 마블(Andrew Marvell)은 “정원”(The Garden)이라는 시에서 정원이 주는 아름다운 고요함과 순수함을 찬양하며, 문명사회는 정원에서의 달콤한 고독에 비하면 거의 야만에 불과하다고 노래한다.(2연: “Fair Quiet, have I found thee here./ And Innocence, thy sister dear?/ ... Society is all but rude/ To this delicious solitude.”) p. 980.

4) van Erp-Houtepen이 쓴 ‘정원의 어원학적 기원’(The etymological origin of the garden)에 따르면 ‘정원’은 “a piece of ground fenced off from cattle, and appropriated to the use and pleasure of man: it is, or ought to be, cultivated”로 정의된다(Turner 1, 재인용).

지적하듯이 정원은 이와 같이 여성의 단점과 한계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이 공간은 새롭고 보다 강력한 관점 안에서 젠더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여성성은 역동적이고 순응적이며 활동적이다(Boyd 194).

본 논문에서는 로렐 새처 올리치(Laurel Thacher Ulrich)의 『어느 산파의 이야기: 1785-1812년 일기에 근거한 마사 발라드의 삶』 (*A Midwife's Tale: The Life of Martha Ballard, Based on Her Diary 1785-1812*)과 가브리엘 루아(Gabrielle Roy)의 「바람속의 정원」 (*Garden in the Wind*)<sup>5)</sup>에서 정원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고독을 즐기며 끊임없는 배려와 돌봄과 사랑으로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게 만드는 특별한 공간이 되는지를 연구한다. 이 두 작품은 미국과 캐나다라는 공간적 거리감과 본토 정착민과 이민자라는 인종차이와 1세기가 훨씬 넘는 시대차를 보이는 여주인공들의 삶을 보여주지만, 그들의 정원은 생산의 근원으로 기여하며 또한 개인적인 사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아주 훌륭한 도피처이자 생산 장소이며 창의적 공간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정원에서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행하며 거기서 얻는 즐거움과 위안과 행복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돌봄의 경험과 소통의 기회를 부여한다. 남성들과 달리 자신의 경제력이나 독자적 공간을 소유할 수 없었던 여성에게 정원은 자기만의 공간이 되며 동시에 인간의 영적/내면 교류를 통한 확장된 인간 문화와 사회의 공간이 된다. 이곳에서 인간은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도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인간성을 발휘하며 스스로의 영혼을 가꾸는 것이다. 『어느 산파의 이야기』에서 정원이라는 공간은 여성이 주체적 정체성을 발휘하는 장소이자 예술적 표현능력을 구현하는 구체적 현장이며, 「바람속의 정원」에서 마르타(Marta)가 가꾸는 정원은 ‘자아성찰과 변형’(Boyd 189)을 가져오는 현장으로, 정원을 가

5) 1909년 캐나다 서북부 매니토바(Manitoba) 주 세인트-보니페이스(Saint-Boniface)에서 태어나 자란 가브리엘 루아는 1937년 가을부터 2년 정도 영국과 프랑스를 여행한 후, 가족과 교사직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동부 몬트리올(Montreal)과 퀘벡 시에 정착하여 자신의 “마음의 언어”(Delson-Karan 199)인 불어로 작품 활동을 한 캐나다작가이다. 이 작품은 본래 1942년부터 시작된 3편의 pre-texts를 기반으로 다른 세편의 단편들과 함께 1975년 『세상 끝의 정원과 단편들』 (*Un Jardin au bout du monde et autres nouvelles*)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2년 후 『바람속의 정원』 (*Garden in the Wind*)(1977)이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출간되었다.

꾸는 일은 단순히 땅을 경작하는 일이 아니라 표현을 위한 실질적인 공간을 제 공함으로써 여성예술가(창조주)의 역할을 가능케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작품에서 정원이라는 공간과 정원을 가꾸는 이러한 행위가 인간 존재성에 대한 자각과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자아성찰을 수행하고, 자아뿐 아니라 타아에 게도 삶의 위안을 얻고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며 작가, 화자, 독자에게는 창조성/상상력을 발휘하는 글쓰기/글읽기라는 창작행위로 이어지고 있음을 살펴 본다.

## II. 마사 발라드의 정체성 구현의 공간

로렐 새처 올리치의 『어느 산파의 이야기』는 1785년부터 1812년 까지 쓴 마사 발라드의 일기를 읽어나간다. 마사의 일기에서 독자는 그녀가 오롯이 자신에게만 속하는 자기만의 정원을 가꿨음을 알 수 있다. 일기 속에 마사는 자기만의 정원을 가꾸는 작업을 기록하며 또한 사회 비판을 고무시킬 수 있는 공적 공간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 자신이 산파로 일생을 보낸 메인(Maine)주의 핼로웰(Hallowell) 마을의 사회 문화에 대해 보여준다. 마사의 말년에 쓰인 마지막 장 “나의 정원에서 작업”(works in my garden)은 특히 어떻게 그녀의 작은 정원이 마음대로 소유하고 경작하는 그녀의 “작은 우주”(Ulrich 315)가 되는지를 묘사한다.

비록 “남편이 정원 주변에 울타리를 고치는 일을 도와주지만”(Ulrich 311), 또한 남편과 아들 조나단(Jonathan)이 밭을 갈고 정원을 파는 일을 도와주지만, 정원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것은 마사이다. 올리치는 “씨뿌리기(planting)를 하는 것은 거의 언제나 마사였다”(Ulrich 325)고 분석한다. 서구문화담론에서 여성은 토양이고 남성은 그곳에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존재로 언급되는 일반적 전통에 비춰볼 때, “씨를 뿌리는” 마사의 정원이라는 여성적 공간에서 젠더의 전이를 가능케 한다. 정원은 여성에게 남성 문화와 거리를 둔 새로운 창조적 문화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마사의 계절의 변화나 봄의 전조를 아주 잘 알았다. 구식의 전통적인 정원사인 마사에게 있어서 “씨뿌리기는 영원히 지속

되는 주기”(Ulrich 324)였다. 그러나 아무리 씨뿌리기가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돌봄과 노동을 필요로 한다. 마사의 “토양에 관심”을 보이는 “조직적이고 진지한 정원사”(Ulrich 325)였다. 씨앗을 뿌리고 돌봄과 노동으로 작물들을 경작함으로써, 마사의 새로운 삶을 생산해 내기 위해 토양과 자연의 산모이며 동시에 산파가 된다. 참된 정원사는 언제나 “지속적인 정원사”(Harrison 7)이며 “비록 신성한 창조주는 아니지만 땅의 창조주 역할”(Harrison 23)을 취하는 것처럼, 마사의 정원은 끊임없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장소가 된다. 더구나 올리치가 지적하듯이 “반복적인 계절의 주기에 따라, 매년 같은 씨앗을 뿌리고, 일기장에 같은 낱말들을 기록하고, 날씨가 똑같이 변화하는 가운데, 옛 생명들은 죽고 새로운 생명들이 시작되었다”(Ulrich 314-5). 탄생과 죽음을 순환하는 인간의 삶처럼 땅은 새로운 생명체를 낳고 죽은 것들을 감싼다. 산파이며 정원사로서 마사의 이 다른 두 영역을 연결하며 결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관리인이다.

톰 터너(Tom Turner)에 따르면 정원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육체를 위한 정원, 활동을 위한 정원, 정신을 위한 정원이 그것인데(Turner 8), 마사 발라드의 정원은 이 세 가지 범주에 모두 적합하다. “숲의 황폐함 가운데 질서의 오아시스”(Ulrich 326)를 제공하는 마사의 정원은 그녀가 창조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창조하고 계발시킬 수 있는 장소이다. 마사의 정원은 실질적인 육체적 작업을 요구하는 먹을거리 수확물과 약초 허브를 심는 일상적인 정원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녀의 정신을 배양하는 공간이다. 올리치가 주장하듯이 “사람들이 경작하는—그리고 묘사하는—정원은 그들의 열망을 드러냈다”(Ulrich 328). 콩, 양상추, 당근, 양파, 시금치, 오이, 머스크멜론, 워터 멜론, 그 밖에 많은 다른 유용한 수확물을 심어 가꾸으로써, 마사의 정원은 “유용한 현금”(Ulrich 328)을 가져다준다. 정원은 이웃들에게 팔고 교환할 수 있는 “먹을 것과 약초를 위한 공장”으로 기능하며, 소비할 돈을 갖게 되는 것은 부수적으로 마사의 “영혼에 자양분을 제공했다”(Ulrich 329). 올리치에 따르면 다음 구절은 이런 내용을 상세히 드러낸다.

“나는 내 정원에서 일했다” 라고 마사의 5월 17일자 일기에 썼는데, 소유대명사는 그녀가 그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느꼈음을 드

러내는 유일한 암시였다. 정원은 그녀의 것이었다. 비록 그녀 남편이나 아들이나 헬로웰이나 어거스타 은행이 그 땅을 소유했다고는 하지만 말이다. “집 동편 화단에서 호박과 오이가 싹을 냈다”고 그녀는 5월 22일자 일기에 썼다. 정원은 그녀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흙을 뒤집고, 씨앗을 뿌렸으며, 매년 마치 그 과정이 전에는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봄의 기적을 자신의 일기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Ulrich 329)

"I have worked in my garden," she wrote on May 17, the possessive pronoun the only hint of the sense of ownership she felt in her work. The garden was hers, though her husband or son or the Hallowell and Augusta Bank owned the land. "I have squash & Cucumbers Come up in the bed East side the house," she wrote on May 22. The garden was hers because she turned the soil, dropped the seeds, and each year recorded in her diary, as though it had never happened before, the recurring miracle of spring.

물질적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러한 분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마사의 정원은 사고가 행해지는 장소가 된다. 정원사는 식물과 토양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해리슨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인류에게 그의 육체를 주는 땅”처럼 “일종의 정원”이다(Harrison 11). 특히 여성에게 이러한 정원은 자신의 고독을 즐기며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사적이며 공적인 공간이 된다. 해리슨이 지적하듯이, 정원은 사람들을 모으는 힘을 가지며, 따라서 정원은 “교제, 대화, 우정, 스토리텔링, 간단히 말해, 공유화”(Harrison 45)의 장소가 된다.

울리치는 마사가 미동부의 무질서한 사회적 삶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기에, 언제나 자신의 정원에서 “자신만의 작은 구획의 땅을 돌보며”(Ulrich 322) 정원 가꾸기에 대한 글쓰기를 계속해왔음을 지적한다. 마사의 “매 계절이 강요하는 나날이 증가하는 업무인 일상적인 정원 가꾸기 일”(Ulrich 329)에 헌신하였다. 마사는 결코 신성한 창조주가 아니었으며, 바

로 그 이유로 그녀는 날씨 변화나 들판의 조건에 더욱 주의하였다. 마사 발라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속하여 순환되는 자연의 기적을 일기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단어의 정원사가 된다. 미리 계획된 플롯에 따라 씨앗을 모으고 순서대로 땅에 심는 것처럼, 글쓰기는 단어들을 조합하여 조직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탈식민주의 학자인 엘리자베스 드로프리(Elizabeth DeLoughrey)가 언급하듯이, “정원 가꾸기와 같은 일을 글쓰기 과정과 연결하는 확립된 전통이 있어왔다... 그것들은 특별한 공간들로부터 의미를 창조하며, 둘 다 가까이에 있는 재료들과 창조의 과정을 개념화한다”(DeLoughrey 305). 글쓰기가 작가의 정신적 육체적 힘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의미를 창출해내는 것처럼, 정원 가꾸기는 육체적 노동과 의식적 행동과 생각을 필요로 하는 창조적 행동이다. 마사는 정원 가꾸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는 일기쓰기를 통해서 영혼을 가꾸어 온 창조자이다.

스토리는 글로 써지건 구전으로 전해지건 정원과 같다. 해리슨이 아름답게 묘사하듯이, “그것은 분명한 형태와, 명확한 리듬과, 별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사와, 전개되는 관점과, 음모와 놀라움과, 끔찍한 밀면과, 변화하는 외관과, 상상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실제 세계’에 대한 전이관계를 갖는다”(Harrison 89). 해리슨이 주장하듯이 스토리와 정원은 상상의 경계를 넘어선다. 정원 가꾸기와 일기쓰기라는 두 가지 작업을 함께 수행한 마사는 비록 무명의 존재지만 그녀만의 ‘작은 우주’에서 끊임없는 돌봄과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시도하는 창조의 과정을 이행하며 스스로를 계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며, 그 경험의 희열을 발현시킴으로써 독자에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사의 일기에 쓰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후대에 알린 여성이며 정원사이며 작가가 된다. 마사에게 있어서 그녀만의 정원 가꾸기는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언어로 묘사되어 온 ‘씨뿌리기’(planting)와 ‘밭갈이’(ploughing)와 같은 행동을 주체적으로 여성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전복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마사 발라드의 정원 가꾸기는 글쓰기의 차원에서 이미 남성언어를 전유하여 이를 전복하는 여성적인 경험세계로 편입해 들어온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여성들을 가두어두는 공간이 아닌 여성주체성의 구현을 위한 장소인 정원과 그곳에서 행해지는 노동인 정원 가꾸기는 여성을 위한 명상과 창조성 발현



의 공간이며 매체로 기여한다는 점은 다음 장에서 살펴 볼 가브리엘 루아의 「바람속의 정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 III. 마르타 야람코의 치유와 창조와 소통의 공간

「바람속의 정원」은 우크라이나의 볼히니아(Volhynia)에서 광막한 캐나다 서부로 이민 온 여주인공 마르타 야람코(Maria Marta Yaramko)가 자신의 정원의 꽃을 가꾸며 종교적 사유를 곁들여 과거의 삶을 반추하는 노년의 황량하고 고독한 삶을 그리고 있다. 1920년경 고국을 떠나 앨버타 주 북부의 볼린(Volhyn)이라는 외진 지역에 등지를 내린 거의가 문맹인 이민자들<sup>6)</sup> 중 “세상 끝”<sup>7)</sup> 같은 이곳에 단지 한 부부만 적막한 고독 속에 아직 남아있다. 노년의 이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과 그 주변은 그녀 어머니가 예언했듯이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심연”(145)과 같이 황량한 야생의 침묵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남편 스테판(Stepan)에게 이곳의 현재 삶은 “먼지가 잔뜩 덮인 끔찍한 유배생활”(152)에 지나지 않는다. 귀화증명서도 있으나, “벌레들의 삶이나 다름없이 왜소하고 잊혀져버린 삶”(140)을 살아 온 지금 이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도 캐나다 사람도 아닌 채”(140)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자 주변인으로 존재한다.

스무 살에 남편을 부추겨 이민열차를 타고 끝없이 달려와(143) 이역만리 황량함속에 고된 이민생활 끝에 암에 걸려 죽어가는 마르타가 계속해서 자신의 정원의 꽃을 가꾸는 행위는 이주지의 새로운 언어와 문화가 생경하여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이민자로서 일종의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혹한과 폭염과 폭우와 같은 극한의 자연에서도 주기에 맞춰 생명을 피워내는 마르타 정원의 꽃들은 이민자로서 적대적인 환경에서 뿌리를 내려야하는 마르타

6) 1891년에서 1914년 사이에 캐나다로 거대한 이민 물결이 처음 일어났을 때, 약 175,000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가난에 찌든 조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했다(Harvey 133, 재인용).

7) 작품의 영어제목과 달리 처음 루아가 쓴 불어판 제목은 「세상 끝의 정원」으로 이들이 처한 절망적인 공간적, 시간적, 정신적 상황을 더욱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의 삶의 의지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자메이카 킨케이드(Jamaica Kincaid)가 그녀에게 있어 정원은 “기억 연습”(an exercise in memory), 즉 “자신의 최근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 자신의 과거에 닿는 방식”(Kincaid 8)이라고 말하듯이, 마르타에게 자신만의 정원 가꾸기는 자신의 근원을 보존하는, 떠나온 고향을 재생시키는 한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낯선 곳에 이식된 자신의 삶과 같은 씨앗을 뿌려 경작하는 정원은 볼린에서 30여년의 그녀 삶의 ‘진정한 역사’(149)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체를 생산해내며 죽은 것을 포용하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마르타의 육체적 행동의 노동과 정신적 정서적 작업은 그녀를 권태와 무의미성에서 탈피하게하며 그녀 삶의 원동력이 되어 온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타의 정원은 대표적으로 톰 터너의 ‘정신을 위한 정원’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화자는 과거 젊은 시절에 작품창작의 절망에서 비롯한 정신적 슬픔과 우울의 상태에 빠져있을 때 우연히 들어 선 길에서 황량하고 메마름 속에 “찬란한 꽃들이 피어있는”(125) 작은 정원을 보게 된다. 현실과 꾸며낸 글쓰기 사이에 갈등으로 번민하던 화자는 삭막한 볼린의 인적 없는 길 가에서 본 작은 정원과 나무십자가가 꽃힌 무덤에 적힌 마리아 마르타 야람코라는 여인의 이름을 갖고서 그녀의 삶을 꾸며내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 “글쓰기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며 스스로를 감금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도록 도와주며 아마도 어느 정도는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sup>8)</sup>(Writing is our only possible salvation, our only way out of the confines of ourselves ... and thus perhaps freeing ourselves to some extent, help[ing] others to free themselves)이라는 가브리엘 루아 자신의 말처럼, 화자는 마르타와 영적 교류를 느끼며 스스로 작가로서의 압박감에서 해방되며, 그 출산물인 「바람속의 정원」이라는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달한다. “마르타 야람코, 도대체 너는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이냐?”(139)라고 자문하는 마르타에게 그녀가 가꾼 애정과 돌봄의 공간인 정원은 “살아있는 예술품”(Boyd-2013, 159)으로서, 고독과 권태에서 탈출하며

8) 조이스 마샬(Joyce Marshall)에게 보낸 1974년 3월 31일자 편지. Francois Ricard, *Gabrielle Roy: A Life*, 1996. Trans. by Patricia Claxton. Toronto: M&S, 1999. p. 437, 재인용.

“침묵과 습관의 굴레로부터 벗어나”(128) 세상과 소통하는 장소이자 치유와 창조의 공간이 된다.

마르타는 정원 가꾸기를 통해 자연세계에 질서를 가져오며, 인간세계에도 사랑과 소통이라는 유대감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여성예술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마르타가 자신의 정원에 보여주는 끊임없는 애정과 매서운 돌풍에 쓰러지는 꽃들을 위해 인간 힘을 쓰는 끝없는 노력은 사실 글쓰기의 과정과 맞닿아 있다. 언어적, 시적 창의력을 발휘하여 글쓰기로 세상을 재창조하려는 작가의 노력과 열정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돌보는 정원사의 그것과 유사하다. 마르타의 정원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난처한 표정으로 쳐다보기만 하던 어떤 낮은 사람에게 갑작스레 낙천적으로 회복하는 정신적 힘을 주며 ‘소중한 선물’(151)의 의미를 전한다. 약 여섯 달이 지난 후 편지나 설명 없이 그가 삶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징표로 보낸 구근들과, 글씨를 쓸 줄 몰라 달랑 장미 한 송이만을 마치 편지처럼 두 장의 종이에 눌러 보내온 옛 친구의 선물에서 거둔 씨앗들과 더불어 만들어진 마르타의 정원은 삶에 대한 성찰과 사회비판을 자극하며 타인을 변형시키는 공적공간이 된다(Boyd 191).

마사 발라드와, 마르타 야람코와, 마르타의 삶을 꾸며내어 전달하는 화자는 정원을 경작하고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그들 자신만의 방을 소유하며 주체적 자아의 확립을 실현한다. 두 작품의 주인공은 사실 무명의 여성으로 마르타 야람코가 “대체, 왜, 나는 살아왔던 것일까”(166)라고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듯이 세상에 미미한 존재들이다. 울리치가 적고 있듯이 마사는 “자신의 일기에 매일의 자신의 삶을 재창조하겠다는 강한 요구를 느꼈으며 ... 어떤 뉴잉글랜드의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것보다도 강한 찬사를 남겼지만, ... 그녀 자신의 일기 밖에는 어떠한 역사적 기록도 갖고 있지 않다”(Ulrich 343). 마르타 야람코 또한 먹고 살기 위해 세상 끝과 같은 곳으로 이민 와 뼈 빠지게 가르친 자식들은 모두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나고 침묵만 흐르는 냉랭한 관계의 남편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아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마르타가 생각하는 불린의 정원의 꽃과 그녀 자신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가장 하찮은 존재이다.

그녀의 삶은 남에게 페를 끼칠 가치가 없어 보였으므로, 조금이라도 남을 불편하게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두려웠다. ... 어

느 길손이, 그 어느 영혼이 불린의 꽃들을 걱정이나 하겠는가!  
(136)

Her life didn't seem to be worth that trouble, and fear  
overcame her at the very notion of the slightest inconvenience  
she might cause. ... What passer-by, what other soul, would  
ever worry about the flowers at Volhyn!

하지만 마르타야! 심지어 자기 자식들한테도 한참 뒤떨어진 무  
식한 늙은이가 세상 밖 어디에서 구제받을 만 하겠는가? (174)

But Marta! An ignorant old woman who lagged so far behind  
even her own children – how could she deserve to be rescued  
somewhere beyond this world?

이런 애잔한 상황에서도 마르타는 정원 가꾸기를 통해 새 생명을 키워내고  
돌보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사실 마르타가 남편 스테판과 사이가 나쁜  
이유도 마르타가 갖고 있는 지나친 희망 때문이다. 자녀들은 모두 떠나고, 거  
리상으로 이웃과도 단절되었으며, 본인은 죽어가면서도 바람만 부는 황량한  
별관에 덩그레 있는 집 근처의 정원을 가꾸는데 온갖 정성을 들이는 마르타의  
모습에 스테판은 질투와 분노(152)에 사로잡힌다. 모든 것이 비관적인 현실에  
서 마치 “삶에 감사를 바치듯이”(155) 마르타가 꽃을 가꾸며 보여주는 돌봄과  
애정과 희망은 스테판이 느끼는 부인의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적인 모험은 너무도 침묵으로 가득 차 있어  
서 그것을 헤치고 나온 사람들조차도 그 실체를 믿기가 어려웠다.  
마치 그들은 이승의 삶과 영원 사이에서 림보 같은 곳으로 산 채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았다. 이러한 고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그들은 감당하려고 해보았었다. 정말이다! 필요  
하다면 맨손으로라도, 신과 인간의 침묵 속에서 그들의 친밀하고  
가족적인 귀중한 삶을 창조하려고 시도해보지 않았다고 그들을 책

망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143)

But that whole human adventure was so impregnated with silence that even those who had lived through it wondered about its reality. It was as if they had entered alive into a kind of limbo, between this life and the Eternal. How could you deal with such solitude? Yet they had tried. Oh yes! No one could reproach them for not trying, with their bare hands if need be, to create in this silence of God and man their little tender life, intimate and domesticated.

위 인용에서 보여주듯이 이민 온 이들 부부는 광활한 자연의 침묵과 고독 속에 행복한 가족의 삶을 꾸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지금은 세 명의 자식마저 각자의 삶을 찾아 모두 떠나버리고 부부만 “무서운 권태”(143)에 빠져 텅보와 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불의의 희생자”(157)라고 느끼는 스테판에게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슬픔이나 회한이 아니라 마르타가 결코 낫지 못할 병에 걸렸다는 “두려움”(156)이다. 그러나 흉년으로 모친을 잃고 혹독한 날씨와 싸우는 등, 살아오는 동안 그토록 모진 일을 겪고도 아직도 인생을 사랑하는(152) 마르타를 미워하면서도, 그녀가 스테판 자신에게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다”(169)는 것을 알아차린 스테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르타가 돌보던 정원을 가꾸게 된다. 캐스린 메디간(Kathleen Madigan)이 언급하듯이 스테판은 억압적으로 부인을 침묵시키려하기 보다는 결국엔 서로 주고받는 보완적 역할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Madigan 74).

해리슨이 말하듯이 정원은 ‘공유화’의 장소가 된다. 자식들 문제로 크게 다툰 이후로 침묵할 뿐 마음속 말을 내뱉기 어려운 스테판은 죽어가는 부인을 대신해 어느 추운 날 저녁 자신의 권태와 고독을 이겨내는 유일한 오락거리인 신문지를 이용해서 정원의 꽃들에 고깔을 씌워준다. 영어를 배우지 못해 자식들과도 교류가 단절된 스테판이 유일한 언어소통 출구인 우크라이나어 신문을 부인의 꽃들을 위해 써버린다는 것은 부인의 정원 가꾸기에 오직 불만을 표현

하던 스테판의 결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그는 마르타가 아파 누워있자 작은 숲의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고 꽃들이 밤새 추위에 견디도록 종이 모자를 만들어주는 돌봄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테판이 아파 누워 있는 마르타를 위해 옥수수 죽을 끓이는 장소인 작은 부엌 또한 마르타가 “권태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꾸민 공간”(164)으로, 마르타의 정원처럼 애정과 돌봄과 희망의 공간이다. 주로 여성의 사적인 공간인 마르타의 부엌과 정원에서 “갈고리 같은 수염”과 “의심 많고 어두운 늑대 눈”(133)의 “야만인”(130)같은 스테판이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곳이 타인과의 삶의 공유화가 이루어지는 ‘거주의,’ 즉 문명의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남편의 이런 행동은 마르타의 “가장 참혹한 시련의 시절”(173)에 대한 보상이며 애정<sup>9)</sup>으로 전달되며, 남편이 청소한 사시나무 숲은 그녀가 “시원하고 자유롭게 숨을 쉬게”(170) 만든다. 사실 이 작은 숲에서 사시나무 이파리들이 부딪치며 만들어 내는 소리는 마치 축제 때 치는 캐스터네츠처럼 그녀에게 삶의 원천이 된다.

세상 어디에서 불었든, 어떤 절망을 목격했든 간에, 바람이 이 작은 숲에 돌아오면 평온해지고 고요함을 되찾거나 하는 것처럼, 경쾌한 노래하는 무언가가 이곳을 지나갔다. (131)

Yet something light and singing went through the place, as if the wind, wherever in the world it might have been, whatever despair it might have known, grew tranquil and regained its calm on coming back to this little wood.

오직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젊은 시절, 마르타는 바로 이런 폴란드의 사시나무포플러 숲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은 것을 기억해냈다. 아, 그러니까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삶의 원천에 스스로를 이어주기 위해서, 음악으로 가득한 정다운 이 사시나무포플러 숲에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131-32)

9) 루아는 죽기 일 년 전쯤 행한 마지막 인터뷰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애정”(la tendresse humaine)이라고 밝힌바 있다(Delson-Karan 204).

The same sound Marta remembered hearing in just such an aspen wood in Poland, when she was young and thinking only of the future. Oh, this dear aspen wood filled with music, she could count on it then to link her always with the wellspring of her life!

스테판이라는 이름대신 ‘야람코!’(184)라는 성으로 남편을 부르던 이들 부부의 관계는 작은 숲과 정원에서 배려와 공유화가 이뤄지는 행위를 통해 정신적 교류와 애정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조짐을 보인다. 지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죽음에 직면한 현실에서 오는 ‘세상 끝’이라는 상황에서도 바람 속에 흔들리는 묘목들에 버팀 목을 박아주고 멀리서 물을 길어다 주는 마르타의 정성과 인내와 애정은 남편 스테판의 단단하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펜스레 화를 낼까봐 ‘늙은 꿈’(174)같은 남편이 꽃에 보이는 넘치는 애정을 보았음을 마르타가 비록 표현은 못하지만, 마르타는 그날 밤 인간 영혼과 죽음과 영원성에 대해 명상하며 사후 자신이 좋아했던 바람과 같이 교류하며 불멸의 자연 속에서 공존하는 자신을 그려본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하고 바람이 속삭이는 것 같았다. ... 이 지방에서 바람은 종종 그렇게 사납게 몰아치지만, 바람보다 더 어루만져주고 매혹적인 것도 없었다. 모든 기분들을 ... - 바람은 이 모든 것들을 품고서 차례로 그것들을 표현해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바람은 우리의 영혼들을 혹은 영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때때로 마르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144)

"What's going on today?" the wind seemed to whisper... Nothing could be more caressing and enchanting than the wind, so often furious in this country. All the moods of the spirit... - it seemed as if the wind contained all these and tried to express them, one after the other. It must know our souls or

something of what goes on there, Marta thought to herself at times.

그녀가 그렇게나 사랑했던 바람이 때때로 그녀를 기억해준다면, 바람이 이 고장을 가로 질러갈 때 그녀의 삶에 대해 무언가를 얘기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었다. 바람이 외로울 때면 그녀에게서 위로를 받고, 그녀는 여기저기 떠돌며 불어대는 바람의 정령에게서 위안을 얻고. ... (175)

If he remembered her sometimes, for she had loved him so much; if as he crosses the land he said something of her life – that would be enough for her: the wind in his loneliness consoling himself in her, and she in his errant spirit....

마르타가 정원에서 돌봤던 것은 꽃들만큼이나 “자신의 영혼”(173)으로, 그녀는 신이 자신에게 어떤 의도를 품었던 간에 ‘겸허한 불멸성’을 지닌 자연에서 상호 위안을 얻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즉 바람의 정령과 풀잎의 노래 같은 자연 속에 영원히 살아남는 인간의 삶을 구현한다. 보이드가 지적하듯이 루아의 정원은 “자기반성과, 창조적 자유와, 성장하고 정당함을 인정받게 되는 예술성에 대한 확신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Boyd 195). 작품에서 마르타의 작은 정원은 우연히 지나가던 낯선 길손이나 작품의 화자나 그녀의 남편에게 기능하듯이, 여성의 해방적 개인공간이자 공적 교섭과 표현의 장소가 된다. 마르타는 사후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는 절망감을 넘어 불멸의 존재로 남는다.

#### IV. 나가는 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원 가꾸기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글쓰기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거쳐 자유로운 삶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아름다운 꽃에 대



한 메타포인 정원은 외부와 담을 쌓은 폐쇄된 가정의 삶에 복종적으로 순응하는 집안의 천사를 상기시키는 상징성을 띠지만, 동시에 인습적 규범에서 벗어나 해방된 자아성찰과 창의성을 발휘하며 사회적 소통과 정화를 이루는 공적인 공간이 된다. 정원과 스토리는 인간 상호작용의 현장으로, 헤리슨이 표현하듯이 정원은 종종 “비전과 에피파니”(Harrison 55)의 장소가 되며,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새로 나온 싹을 정성으로 돌보는 작업인 정원 가꾸기 (gardening)와 글쓰기(writing)는 끊임없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경주하고 거기에 근거한 기쁨과 행복을 찾는 작업인 것이다.

마사 발라드나 마르타 야람코는 역사적, 인종적, 지리적으로 확연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들은 통상적으로 인간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는 주류에서 벗어있는 여성들로서 지적인 교육의 기회나 개인적 창조의 공간을 꿈꿀 수 없던 그들에게 정원은 내적 목소리의 발현을 위한 표현매체이며 수단으로 작용했다. 정원에서의 작업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의 산과 마사 발라드나 20세기 중반의 마르타 야람코에게 땅에서 얻는 직접적인 수확물뿐만 아니라, 일기쓰기를 통한 정체성 구현과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적 삶에 대한 끈질긴 내적통찰과 더불어 타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며, 구체적으로 글쓰기라는 정신적 산물을 선물한다.

## Works Cited

- Boyd, Shelley. "Domestic Gardening: Gabrielle Roy's Bower of Innocence in Enchantment and Sorrow." *English Studies in Canada*. 32.4 (2006): 189-211.
- \_\_\_\_\_. *Garden Plots: Canadian Women Writers and Their Literary Gardens*. Montreal: McGill-Queen's UP, 2013. Print.
- DeLoughrey, Elizabeth M. "Island Ecologies and Caribbean Literature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95.3 (2004): 298-310.
- Delson-Karan, Myrna. "The Last Interview: Gabrielle Roy." *Quebec Studies* 4 (1986): 194-205.
- Harrison, Robert Progue. *Gardens: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 of Chicago P, 2008.
- Harvey, Carol J. "Minorities of the Canadian West in the Work of Gabrielle Roy." *Changing Representations of Minorities East & West*. Ed. Larry E. Smith & John Rieder. Honolulu, HI: U of Hawaii P, 1996. 131-42.
- Kincaid, Jamaica. *My Garden (Book)*.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2001.
- Madigan, M. Kathleen. "Uncommon Ground in Gabrielle Roy's 'Un jardin au bout du monde'." *Women in French Studies* 5 (Winter 1997): 69-76.
- Marvell, Andrew. "The Garden."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Rev ed. Vol.1. New York: Norton, 1968.
- Merchant, Carolyn. *Reinventing the Garden: The Fate of Nature in Western Culture*. New York: Routledge, 2003.
- Perenyi, Eleanor. *Green Thoughts: A Writer in the Garden*. New York: Modern Library, 2002.

- Ricard, Francois. *Gabrielle Roy: A Life*. 1996. Trans. Patricia Claxton. Toronto: McClelland and Stewart, 1999.
- Roy, Gabrielle. *Garden in the Wind*. Trans. Alan Brown. Toronto: McClelland & Stewart, 1977.
- Turner, Tom. *Garden History: Philosophy and Design 2000 BC - 2000 AD*. London: Spon, 2005.
- Ulrich, Laurel Thatcher. *A Midwife's Tale: The Life of Martha Ballard, Based on Her Diary, 1785-1812*. New York: Vintage, 1991.
- Wimsatt, Jr., W. K. ed. *Samuel Johnson on Shakespeare*. Clinton: The Colonial P, 1960.
- Woolf, Virginia. *To The Lighthouse*. London: Hogarth, 1977.

Abstract

## **Gardening and Writing in Martha Ballard and Gabrielle Roy**

Jin, Myunghe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This essay explores the meaning of gardening and writing in Laurel Thatcher Ulrich's *A Midwife's Tale: The Life of Martha Ballard, Based on Her Diary, 1785-1812* and Gabrielle Roy's *Garden in the Wind*. Gardening and writing are argued to create a space of freedom and life through their creativity and imagination. Garden as a cultivated plot becomes a space of birth and husbandry where food crops and flowers are cultured by women, who seldom have the room of their own in traditional patriarchal households. Garden also functions as private shelter and public space for an artistic representation. Though the parallelism between gardening and writing has been a commonplace since Homer in the European literary tradition, it is remarkable especially for women writers in that both gardening and writing are the acts of cultivation and creativity, that is, of maternal re-productivity, free from patriarchal oppression.

The two target texts of this analysis especially reveal the importance of gardening for female characters. Martha Ballard's garden is a space where she builds her identity as a birth mother, creator and midwife. Martha's garden also allows her to root in the wild foreign land, and it brings her the grace of salvation, vitality and hope. Here Gabrielle Roy finds the analogical juxtaposition between gardening and creative writing as a means of care, affection and mutual communication given a hostile and incumbent environment and reality. Garden becomes a great space for female

characters in the chosen texts to reflect on themselves and others around. Garden is a space of invention which provides materials and plots to write of, a space of vision and epiphany. As women, artists and great thinkers, Martha and Marta are able to create 'the room of their own' through an act of gardening and writing.

**Key Words: Martha Ballard, Gabrielle Roi, gardening, writing, creativity**  
마사 발라드, 가브리엘 루아, 정원 가꾸기, 글쓰기, 창조성

논문접수일: 2015.11.23

심사완료일: 2015.12.22

게재확정일: 2015.12.24

이름: 진명희

소속: 한국교통대학교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이메일: mhjin5488@daum.net

